

군복무 중 '수만 분의 1 확률' 조혈모세포 기증 '훈훈'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송민준 일병, 생명 나눔 실천 정기적 헌혈 참여도...모범병사로 부대 장병 '귀감'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장병이 혈액 암 환자에게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조직 적합 확률을 뚫고 기증한 주인공은 1전비 운항관제대 소속 송민준 일병(병 872기)이다.

송 일병의 결심은 개인적인 아픔에서 비롯됐다. 과거 암으로 친조부를 떠나보낸 그는, 같은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가져왔다. 입대 전 유연히 접한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물을 계기로 기증 희망 서약에 참여했고, 지난해 6월 말실업 없이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 적합성 항원(HLA)이 일치해야만 가능하다.

가족 간에도 일치 확률이 약 5%에 그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일병은 입대 후 불과 4개월 만에 적합 판정을 받으며 기적 같은 기회를 맞았다.

기증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차 건강검진에서 높은 염증 수치가 확인되며 기증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

하지만 송 일병은 반드시 기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개인 정비시간을 활용해 운동과 체력 관리를 이어갔고, 몇 주간의 노력 끝에 2차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결국 송 일병은 지난 3월13일 입원해 조혈모세포 기증을 무사히 마쳤고, 이후 회복 기간을 거쳐 부대로 복귀했다.

평소에도 그는 생명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온 장병으로 알려졌다.

조류 충돌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정기적인 헌혈에 참여해 왔으며, 전우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성실한 근무 태도로 모범병사로 선발되기도 했다. 특히 기증을 앞두고 축진제 투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군무를 빠짐 없이 수행했다.

송 일병은 "동료 장병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기증을 마칠 수 있었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뜻깊은 일에 참여하게 돼 기쁘고, 제 경험을 계기로 더 많은 이들이 생명 나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장병들이 송민준 일병(앞줄 가운데)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축하하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공군 제1전투비행단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아시아문화전당-지역협력협의회 위원 위촉...본격 활동

문화정책·협력 등 전문가 18명 구성...임기 1년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업...상생·발전 기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최근 회의실에서 '2026 ACC-지역협력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역 협력에 나섰다.

'ACC-지역협력협의회'는 ACC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생태계 강화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지역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지역 문화예술 협의체다. ACC는 이 협의체의 추천으로 지난 2월 복합전시6관에서 '파편의 파편: 박치호·정광희' 전시를 개막하는 등 이들이 제안한 의견을 ACC 운영 전반에 반영했다.

올해는 ACC의 운영 핵심 키워드인 '지역 문화예술 유관기관과 협력' 및 정부 국정과제인 '문화로 지역 성장'과 '문화예술

자원체계 개선'을 실행하기 위해 2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위촉된 2기 위원회는 문화정책, 지역 협력, 콘텐츠, 문화예술 분야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년이다.

ACC는 ACC-지역협력협의회가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협업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해 ACC의 콘텐츠로 활용할 뿐 아니라 지역 예술가와 단체의 참여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과 ACC의 상생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가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 거점이자 대표 관광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최근 회의실에서 '2026 ACC-지역협력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역 협력에 나섰다.

된 이유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자원과 역량 때문"이라며 "이제는 지역의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강화를 위해 잠재력 있는 문화자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ACC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당장은 "특히 ACC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에 있어 한 축을 담당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지속적인 K-컬처의 성공 원천을 지역 문화에서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촉식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앞으로 ACC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섬박람회 조직위-한국여행업협회 홍보마케팅·관광상품 개발·관광객 유치 '맞손'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여행업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23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여행업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직위 김종기 사무총장 등 조직위 관계자와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장유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런 협약을 따라 양 기관은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마케팅 협력을 비롯해 박람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우수 관광상품 개발·선정과 마케팅, 국내외 단체관광객 모집 및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기 사무총장은 "국내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여행업협회와의 이번 협약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앞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주말 공단이 운영하는 승촌보캠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나만의 화단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환경공단, 승촌보 캠핑장 화단 조성

시민 참여 '나만의 화단 만들기'... 도심 속 자연체험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지난 주말 공단이 운영하는 승촌보캠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나만의 화단 만들기'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사전에 참여 희망자 77명을 모집했다. 참여자들은 구획된 화단에 데이지와 비올라 등 2종의 꽃모 1000본을 직접 식재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팸말을 꽃아 '나만의 화단'을 완성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꽃을 식재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승촌보캠핑장은 영산강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조성된 도심 인근 친환경 캠핑장으로, 넓은 잔디와 쾌적한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꽃을 심고 가꾸는 체험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뜻깊은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승촌보 캠핑장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캠핑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 여성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

빛고를노인타운서 정기 배식 봉사활동 진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 여성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위원회는 올해 2월 첫 활동을 시작으로, 매월 17일마다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찾아 정기적인 배식 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3월 활동이 두 번째다.

현장에는 최은선 광주시회장과 정다

정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다수 참석해 봉사에 힘을 보탰다.

위원들은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배식하며 따뜻한 안부를 묻는 등 다정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봉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정다정 여성위원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나눔의 기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부는 최근 송정농협 경제사업장 2층 대회의실에서 고령 조합원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송정농협, 취약계층 어르신 의료봉사활동

100여명 대상 맞춤형 검진·건강상담 실시

농협 광주본부부는 최근 송정농협 경제사업장 2층 대회의실에서 고령 조합원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80세 이상 조합원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혈압·혈당 등 기초 대사증후군 검진을 비롯해 영양 상태 진단,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담 등이 진행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설계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봉사에는 우리요양병원 이만중 원장과 열린병원 의료진 5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이 이뤄졌으며, 송정농협은 공나눔을 준비해 나누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차주철 조합장은 "수십 년간 농협과 농촌의 역사와 함께해 온 조합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농협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농심천심'의 자세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민 조합원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